

<2010년 10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>

1. 중심자는 사명을 받았기에 성경에 자기를 두고 예언한 말씀을 풀고 가르친다.
2.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말씀하시기를 “내 말을 들어 보아라. 모세가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자가 일어나 너희를 구하러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(신 18:15). 나를 두고 한 말이다.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(사 11:1). 나를 두고 말한 것이다. 그것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.” 하셨다. 이와 같이 메시아는 자기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을 풀고 그 뜻을 시대에 이루어 나간다. 중심자들도 성경에 예언해 났기에 오직 중심자만이 성경의 예언을 풀고 역사를 펴 나간다.
3. 월명동의 주인공만 월명동에 대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개발하고 만들고 거기 숨겨진 모든 보물들을 알고 발견한다.
4. 월명동도 주인공만 그 땅이 귀한지 알기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게 한 것이다.
5. 주인공만 알고 차지하게 된다.
6. 주인공은 그 어느 누구보다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고 거기 묻힌 보화를 캐내기 시작한다. 이와 같이 중심자는 누구보다 그것을 귀히 여기니 발견하여 차지하게 되고 주인이 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행하게 된다.